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라”
통제 강화하는 중국...휴대전화 불심검문 규정까지



중국이 국가안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국가안전법을 비롯해 반(反)간첩법, 인터넷-데이터 안보, 식량 안보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까지 제정했다.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2021년 9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작년 7월에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이 개정됐고 지난 3월에는 더 엄격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법안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스 에스켈룬드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 실제로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는 중국 공안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적용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외국인 방문객들도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법학자 루천위안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이는 언제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법안 시행 전부터 선전(深圳)과 상하이(上海) 세관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시작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장 모 씨는 선전에서 세관 통과 시 한 여성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상하이에 거주하는 샤오 모 씨도 세관원이 공항에서 한 남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시편 56:11-13)

하나님, 중국 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수준이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까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법 제정으로 자신들의 통제권 아래 가두려 하는 악한 계획을 꺾어주시시오. 정부의 강한 억압과 구속으로 점점 자유가 없어지는 중국 영혼들에 참 생명의 빛과 안식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무엇보다 지하고 회에 닥칠 어려움과 염려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어 굽은 길로 가는 조국이 주의 통치 아래 었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영국, 출생 시까지 낙태 합법 형법 개정 논의...시민들 반대 집회

영국 하원의원들이 낙태를 출생 시까지 합법화하는 형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의회 밖에서 생명 존중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최근 영국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생명존중(프로라이프) 단체들은 이 집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가 합법화되고 “여성과 태아가 위험한 시술이나 약물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태아보호협회(SPUC)의 알리테아 윌리엄스는 이번 개정안이 “1967년 이후 태아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러한 합법화 개정안은 태아에 대한 나머지 모든 보호를 박탈하고 사실상 출생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이 극단적인 의제는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며, 우리는 이를 의원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시편 7:11-12)

하나님, 낙태를 출생 시까지 합법화한다는 개정안 논의 소식에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며 어린 생명을 죽이는 살인 죄를 법으로 합리화하는 육체의 정욕과 사탄의 간계를 멸하고 꾸짖어 주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긍휼의 기회를 영국에 허락하셔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과 회개에 이르게 하옵소서.

▲ 유엔 세계식량계획, 수단 기아 위기 경고

내전으로 초토화된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그나마 유지돼 온 생명 구호의 창구들이 봉쇄되면서 수단 인구의 기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15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카를 스카우 부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뉴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단 방문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수단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빠른 속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신속하게 구호의 패러다임을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바꿔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곳 수단에서 대규모의 참극을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카우 부국장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과 기아 위기에 처해 있는 수단 인구가 1,800만 명에 달하지만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손길이 닿는 것은 그중 25-3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신명기 10:18,21)

하나님, 내전으로 고통받아 온 수단에 그나마 주민들의 공급처가 되었던 생명 구호 창구들이 봉쇄되면서 심각한 기아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구 안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서로를 돌아볼 수 없는 열방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돌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법적 성별 정정 허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 씨 등 5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성별 정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예규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거나 이미 생식능력을 상실하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와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번 판결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화된 성별 정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성별 변경 제도를 악용해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 범죄자가 여성 교도소에 이감돼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거룩한방파제 공동준비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당사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미국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나라가 똑같이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도 문제로 꼽힌다. 성별 제도에 혼란을 가져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병역기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길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판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데일리굿뉴스 종합).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잠언 9:4-6)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생명의 원리를 무시한 채 스스로 정한 성별로 변경 가능하다는 법적 판결이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별 제도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 주시고, 이 일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일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진리의 기준이 분명히 서게 하소서. 참된 생명을 가진 교회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정욕을 따라 헤매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명철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일본, 65세 이상 고독사...연간 6만 8,000명

일본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사망자가 올해 한 해에만 6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에서 지난 1-3월 자택에서 혼자 살다가 숨진 이는 2만 1,716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1만 7,000명으로 80%에 달했다. 일본 경찰청은 경찰에 들어온 신고와 의사가 알려 경찰이 취급한 고독사 사망 건수를 이같이 집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6만 8,000명의 고령자가 고독사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일본 민간 연구소인 닛세이초연구소가 13년 전인 2011년 내놓은 65세 이상 연간 고독사 추산치 2만 6,821명의 2.5배에 달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한1서 4:11)

하나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가 심각한 수치임을 보며 사랑이 식어진 안타까운 이 땅을 주께 고합니다. 주님을 몰라 다른 것에는 무관심하며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에 집중되어 살게 하는 사탄의 간계에 속지 않도록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진리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옵소서. 오래전부터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와 선교의 씨앗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 스위스 84년 만에 혁명공산당 재등장

스위스에서 84년 만에 공산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혁명공산당(RKP)은 지난 10-12일 베른주 부르크도르프에서 스위스 노동자와 학생 등 320명을 창립 발기인으로 삼아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정당에서 정치비서직을 맡았다는 데르수 헤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제국주의적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겪는 새로운 세대는 공산주의의 귀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창당 이유를 말했다. 혁명공산당은 무산계급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 그림으로 된 엠블럼을 채택하고 내년까지 당원 규모를 발기인의 2배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혁명공산당은 최근 스위스 대학 6곳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을 반대하는 시위에 당원들이 합류했다고 전했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태복음 24:10,12-13)

하나님, 오랜 역사를 통해 공산주의의 실상이 이미 드러났고 지금도 공산권 나라 국민들의 억압과 박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창립한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망치와 낫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이를 조종하는 사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소서. 이 땅에서의 부요한 삶과 안락함으로 인해 진정 사모해야 할 영원한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를 찾아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이티 서북부 폭우 계속...홍수·산사태로 13명 사망



아이티 북서부의 폭력으로 초토화된 지역에서 오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13명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유엔 구호기관이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아이티 북부 항구도시 카프아이티엥(Cap-Haitien)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13명이 죽었다고 밝혔다.

아이티에서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일어난 갱단 폭력과 교전을 피해 수많은 주민이 비교적 안전한 북부 해안지역으로 달아났는데 카프아이티엥 지역도 그중의 하나이다.

아이티 당국은 지난주 3일 시작된 극심한 폭우로 수많은 주택과 상가 등이 파괴되거나 떠내려갔다고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앞으로 수도를 포함한 전 지역에 며칠 동안 더 폭우와 홍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폭력 사태가 거의 내전 수준에 이르러 3주간 총 5만여 명이 달아났다고 한다. 집을 떠난 수많은 피난민이 수용된 시설들이 이번 폭우 이전부터 위생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가 이번 폭우로 더 큰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특히 수도의 폭력 사태와 치안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아이티 주재 임시 조정관 브루노 마에스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솔리노 지구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반복적인 교전과 폭력 사태로 인해 이곳에서만 수천 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피난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도시의 솔리노 구역의 민간인들은 여성과 어린이들 남성들 할 것 없이 모두 불모로 잡힌 채 물, 음식, 연료도 없이 극악무도한 폭력과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그는 비난했다. 마에스는 “폭력 사태의 모든 주범은 당장 폭력을 멈추고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곤경에 처한 아이티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구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뉴시스 종합).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46:1-3)

하나님, 갱단의 반복되는 폭력으로 초토화된 이곳에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까지 더해 어디를 둘러보아도 환난뿐인 아이티의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되어 내전 수준에 이른 분쟁을 멈춰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교회를 통해 복음이 들려지게 하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아이티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조지아, 러시아식 언론·NGO 통제법 의회 통과

흑해 동부 옛 소련 국가 조지아에서 러시아와 유사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이 14일 의회를 통과했다고 AP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외국 대리인' 법안이 이날 의회의 3차 독회(심의회)에서 찬성 84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는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집권당은 "해외 자금 조달의 투명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친러시아 정권이 2012년 러시아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해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던 것을 본떠 국내 민주인권세력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골로새서 2:8-10)

하나님, 국민들의 거친 시위와 우려하는 주변 나라들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을 위한 탐심으로 러시아와 같은 행보를 걷고 있는 어리석은 정부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로 깨워주시고 어지러운 나라 상황으로 인해 가난한 심령으로 있을 조지아 국민에게 의지할 반석 되신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무리로 일어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아시아 태평양 전역서 폭염으로 각국 긴급 조치 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휩쓸고 있는 폭염으로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어린이, 노인, 야외 노동자, 면역력이 낮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 상태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 사회는 이미 이 지독한 더위 속에서 사람들을 돕고 구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4월 28일 미얀마 중부 마그웨이 지역의 차우크에서는 48.2°C의 최고 기온이 기록됐다. 미얀마의 나옹우, 민부, 사가잉은 56년 전 기록을 시작한 이래 4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필리핀은 4월 한 달 동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118개 도시와 지자체가 재난 상태에 놓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31개 지역에 35도 이상 37도 이하인 1급 폭염 경보가 3일 연속 발령됐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열 관련 사망자와 탈수, 전해질 불균형, 피로, 구토, 발열, 실신, 설사, 폐렴, 일사병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편 9:10)

하나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놓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무더위를 다스려 주소서. 날씨로 인한 고난도 이처럼 중한데 복음을 몰라 심판 후에 받게 될 영혼의 형벌을 이들이 받지 않도록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찾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선포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교회를 기억하사 아시아 지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열방에 주의 도를 선포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